

광주시·전남도 교육청 인사혁신 방안

# 광주시교육청, 공정·배려·포용 담는다

## 승진시기 확대, 근무성적평정 개선 실무수습제도 신설 맞춤 컨설팅

광주시교육청이 공정(正), 배려(情), 혁신적 포용(濶)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3년도 지방공무원 인력관리계획'을 마련해 30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8월부터 소속 공무원들로 구성된 인사혁신 협의체를 구성했다. 위원 44명이 5개월여 동안 분과별로 10회 이상 협의회를 가지며 분야별 개선방안을 교육감에게 건의했다. 인사제도 전반을 진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공무원노동조합 등과의 협의를 거친 후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공정 인사 부문에서 승진 시기를 확대하고, 근무성적평정 단위를 개선해 한층 공정한 평정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공직자 자기진작에 중점을 뒀다.

또 매년 선발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격무부서

공무원에게 포상과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뿐 아니라 근무성적평정에서도 실적 가산점을 부여해 승진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5급 승진에서도 근무성적평정 반영 비율을 상향해 업무성과와 정책실행력이 높은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도록 현행 역량평가 제도를 개설했다.

배려와 포용 인사 부문에서는 인정보고 배려가 넘치고 만족도가 높은 조직문화 형성을 목표로 한다.

젊은 세대(MZ세대) 새내기 공무원들의 빠른 공직 적응을 위해 실무수습제도를 신설하고 직무별 전문 교수요원 양성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한다.

시교육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현재 시행 중인 학교 전보점수제 개선안도 마련했다. 기존 고경력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경력점수를 낮추고 육아공무원, 저경력공무원 배려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 두 자녀 이상만 적용받을 수 있었던 육아공무원 우대점을 초등학교 이하 1자녀부터 받게 해 대상 공무원을 대폭 확대하고 우대점수도 기존 점수의 3배로 상향했다. 고경력자들이 재직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점수를 20점에서 절반인 10점으로 낮춰 저경력공무원을 한층 배려한 점도 눈에 띈다.

올해부터 전문 심리상담 기관과 연계해 조직 적응, 관계, 직무상 어려움 등 공무원들이 정서적 도움과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시교육청은 기존 고경력 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경력점수를 낮추고 육아 공무원, 저경력 공무원 배려에 초점을 맞춰 현행 학교 전보 점수제 개선안도 마련했다.

정은남 광주시교육청 행정국장은 "혁신적 포용 교육을 위해 인사제도 개선을 계속하겠다"며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우대받는 공정한 인사를 통해 조직의 활력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동신대, 연극 '갈매기' 일본 무대 날다

### 뮤지컬·실용음악학과, 일본 연극제 '이타바시 뷔네' 초청 공연

동신대학교 뮤지컬·실용음악학과 학생들이 일본 초청 공연을 성공리에 마쳤다. <사진>

동신대에 따르면 뮤지컬·실용음악학과 재학생들이 연출, 출연 등을 맡은 연극 '갈매기'가 최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 연극제 '이타바시 뷔네'(Itabashi Buehne) 무대에 올랐다.

'이타바시 뷔네'는 지난 2015년부터 개최된 연극 축제로, 다양한 나라와 지역의 극단을 초청해 도쿄, 나고야, 삿포로 등에서 매년 열고 있다.

동신대 재학생들은 안톤 체홉의 유명한 희곡 '갈매기'를 언어적인 어려움 없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각색하면서도, 구슬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는 혁신, 신세대와 구세대의 충돌 등의 주제를 명확하게 드러내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특히 연극제 주최를 맡은 일본 극단의

초청으로 이번 공연에 나서, 국내 연극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동신대 김민호 뮤지컬·실용음악학과장은 "프로 연극단도 해외 연극제 초청 공연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우리 학생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라며 "21세기 문화예술을 선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신대 뮤지컬·실용음악학과는 스튜디오, 소극장, 녹음실 등 첨단 교육 시설을 갖추고 실무·현장 중심 교육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21회 포항비대국제연극제 3관왕, 제9회 예당국제연극제 4관왕, 제1회 천안 태조산 젊은 연극제 2관왕, 제1회 대한민국 시민연극제 2관왕 등의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전남도교육청, 일하는 공무원 우대한다

## 선·후배 소통 '리버스 멘토링제' 전문성 강화 '전문직위제도' 운영

전남도교육청이 상급자와 하급자간 소통을 토대로 일하는 직원이 우대를 받는 인사운영 기본 계획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전남도교육청은 소통과 공감에 강화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2023년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은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소통과 공감, 역량 중심의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시행된다.

우선 하급자 중심의 소통 프로그램 '리버스 멘

토링제'가 운영된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경험과 지식을 전수하는 일반적인 멘토링 방식에서 벗어나 저경력 공무원으로부터 기성세대가 대화하는 법 등을 배우는 방식이다.

저경력 직원이 원하는 장소에서 듣고 싶은 내용을 기획해 선배 공무원들과 소통한다.

또 직원들의 정신건강(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현재 도교육청 내에 운영하고 있는 '마음치유센터'를 전남 동부 권역에 1개소를 추가해 운영할 예정이다. 마음치유센터는 매주 화요일에 운영되며 방문·전화·이메일 등을 통해 장시간 근무 또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 대인관계, 가족관계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능력과 역량 중심의 인사문화화를 조성하고 전문

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직위제도 운영한다.

일정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관을 선발·배치하고 장기간 근무를 유도해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5-7급 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 중에서 중요도가 높아 장기간 근무 필요성이 있거나 높은 전문직위와 정보 수준이 요구되는 직위 등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신규 공무원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신규 임용 후보자를 대상으로 본청과 교육지원청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박영수 전남도교육청 행정국장은 "개선안을 통해 지방공무원 인사 운영의 공정·투명성과 복지 수준이 높아져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 학령인구 감소 뚜렷...작은학교 경쟁력 강화

### 전남도교육청, 맞춤형 기초학력·특색교육·다문화 강점 활용

수십년 역사의 지역 초·중·고교 문을 닫는 등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화 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청이 농산어촌 작은 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전남도교육청은 농산어촌 작은 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기초기본학력 보장' '특색 교육과정' '다문화 강점 활용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기초기본학력 보장을 위해 기초학력 미도

달 학생의 학습·비학습적 요인을 파악해 인공지능(AI) 온라인 콘텐츠 기반 통합프로그램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농산어촌 작은학교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력 향상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도 더욱 강화된다. 또 섬 학교 박람회 운영을 통해 우수모형을 확산하고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 우수 강사 확보를 통해 더욱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문화학생 비율이 전체 학생의 5.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특수한 상황을 활용한 효과적인 다문화교육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다문화 가정 엄마들의 이중언어 사용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비롯해 나라 탐방 프로그램, 지역 단위 이중언어 강사 양성, 다문화 가정 통합 지원 유관기관 네트워크 등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운영되는 권역별 진로진학상담센터를 통해 농산어촌 학생들의 진로진학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작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개설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특색교육과정을 운영해 작은 학교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 동강대 보건계열 인재 요람 명성...국가시험 좋은 성적

동강대학교는 보건계열 학과가 국가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30일 밝혔다.

임상병리학과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주관으로 진행된 '제50회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에서 광주, 전남·북 지역 합격률 1위를 차지했다.

오는 2월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방사선과와 작업치료과도 신선편과임에도 국가고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방사선과는 '제50회 방사선사 국

가시험'에서 90% 합격률을 기록, 전국 평균 합격률 75%를 크게 웃돌았다.

광주지역 유일인 3년제 작업치료 학위과정을 운영 중인 작업치료과도 '제50회 작업치료사 국가시험'에서 91.6% 합격률을 기록해 전국 평균 합격률 79%를 뛰어넘었다.

동강대 관계자는 "대학의 보건 계열 학과가 국가시험에서 보건 의료 인재 요람의 명성을 드높였다"고 자평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